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 2시간]

| | | | |
|------|------|------|----|
| 모집단위 | 학부·과 | 수험번호 | 성명 |
|------|------|------|----|

【 수험생 유의사항 】

1.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불일치 시 0점 처리).
4.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5. 각 문항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 제 시 문 □

[가] 칸트의 자유로운 개인은 자연적 인과성 너머에 있는 일종의 초월적 존재이다. 그렇지만 그 경험적인 형태, 즉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인간의 관념에서 이 신조는 자유주의적 인문주의의 핵심에 위치한다. 자유주의적 인문주의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18세기 칸트와 루소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선형적인 측면에서 이 신조는 세속화된 프로테스탄트 개인주의가 발현되는 하나의 형태이다. 신의 자리를 합리적 삶이라는 개념이 대신하고, 신과 합일하기 위해 매진하던 개인 영혼의 자리에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규율되는 개인의 개념이 자리를 잡는다. 즉 개인은 타율적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 존재, 행동의 대상이 아니라 행동의 주체라는 것이다. 지금 논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의 노예라는 생각은 하나의 은유 이상이다. 공포, 사랑, 또는 순응하고픈 욕망을 나에게서 제거한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의 지배에서 나 자신을 해방하는 일이다. 플라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소포클레스는 나이가 든 다음에야 사랑의 열정, 그 잔인한 상전의 멍에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의 경험은 어떤 지배자 또는 노예 소유자에게서 해방된 경험과 마찬가지로 진짜였다. 어떤 저급한 충동에 굴복하고, 나 스스로 싫어하는 동기에 따라 행동하고, 또한 무언가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일을 역겹게 여기고, 나중에 가서 그 당시에 내가 '나 자신이 아니었다.'라든지 '자제력을 잃었다.'라고 반성하는 등의 심리적 경험이 이런 방식의 어법과 사고방식에 속한다. 내가 비판적이고 합리적일 때의 모습이 곧 나 자신이다. 내 행동의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 중요하지 않다. 오직 동기만이 중요하다. 이는 세상사를 일축해 버리고 사람과 사물의 사슬에서 스스로 해방된 고독한 사상가의 신념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때 이 신조는 일차적으로 윤리적이지만 정치적인 신념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치적 함축은 명백하다. 적어도 자유에 관한 소극적 개념만큼 이 신조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전통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나] 인간 행위의 고차원적 형태는 집단적 기원을 가지므로, 인간 행위는 근본적으로 집단적 목적을 갖는다. 인간 행위는 사회에서 유래되므로 사회를 준거로 한다. 즉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들 각자 안에서 구체화되고 개별화된 사회 그 자체이다. 따라서 사회가 병이 든다면 개인도 감염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는 전체이기 때문에 사회의 병은 각 부분에 전염된다. 사회의 해체는 개인들에게 있어 일반적인 생활을 위한 정상적인 조건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제를 차례로 확인하였다.

1. 자살은 종교 사회의 통합 정도에 반비례한다.
2. 자살은 가족 사회의 통합 정도에 반비례한다.
3. 자살은 정치 사회의 통합 정도에 반비례한다.

이 세 명제를 한데 묶어 보면 우리는 자살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각 사회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원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요인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종교가 종교적 감정의 특수성으로 자살 감소에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님은, 가족 사회와 정치 사회도 강력하게 통합되었을 때에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역으로, 자살 경향성을 억제하는 것이 가족적, 정치적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종교 사회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살의 진정한 원인은 집단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하나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유일한 특성은 세 집단이 모두 강력하게 통합된 사회적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살은 사회 집단의 통합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보편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집단적인 힘, 즉 사회의 통합이 자살을 가장 잘 억제하는 요소라면, 그 힘의 약화는 자살의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가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을 때 사회는 개인을 통제하며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살하는 것을 막는다. 사회는 개인이 죽음을 통해서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한다. 집단 감정이나 국가적 신념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통합의 강도는 높아지고 개인은 자살보다 공동의 목적을 더 생각하게 된다.

[다] ‘뉴스피크어’는 오세아니아의 공용어로 영국 사회주의의 이념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뉴스피크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 언어를 유일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뉴스피크어를 가지고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뉴스피크어의 사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미 영국 사회주의 당원들의 대부분은 일상용어에도 뉴스피크어의 어휘와 문법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뉴스피크어 사전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급을 통해 불필요한 어휘와 고어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5, 60년 후에는 결국 뉴스피크어가 기존의 언어인 표준 영어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뉴스피크어가 모든 분야에서 채택되어 이전의 언어가 잊히게 되면 이단적인 사고, 즉 영국 사회주의의 원칙에 벗어나는 사고는 말 그대로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뉴스피크어의 어휘는 당원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나타내며, 아주 미묘한 표현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반면, 그 외의 다른 의미들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배제해 버렸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하기도 했지만 주로 바람직하지 않은 단어들을

폐기하거나 단어의 이차적인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뉴스피크어에는 아직도 ‘free(자유로운)’라는 단어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말은 ‘This dog is free from lice(이 개는 이가 없다).’, ‘This field is free from weeds(이 들판에는 잡초가 없다).’라는 식의 문장에만 사용될 수 있다. ‘politically free(정치적으로 자유로운)’나 ‘intellectually free(지적으로 자유로운)’라는 이전 시대, 바로 옛 언어의 의미로는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 자유, 지적 자유란 이제 더 이상 그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어의 이차적인 의미를 없애는 것과는 별개로, 어휘 자체의 폐기도 뉴스피크어를 만들게 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뉴스피크어는 사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어휘 선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뉴스피크어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되었다.

[라] 중국은 예로부터 한결같이 생존을 제일로 여겼다네. 그래서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위태로운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知命者不立乎巖墻之下)’, ‘부잣집 자식은 처마 아래 앉지 않는다(千金之子坐不垂堂)’, ‘신체와 모발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았으니, 감히 훼손치 않는다(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 등 많은 고훈(古訓)이 있지. 중국의 고훈 중에 구차한 삶이나 생존하라고 가르치는 말이 그렇게 많은데도 외려 사람은 많이 죽었고, 외족의 침입을 훨씬 많이 당했지 않았나. 결과는 영 판판이었던 말일세. 여기서 고훈을 버리는 일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걸세. 이걸 그야말로 어쩔 수 없어서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구차하게 생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려 하기 때문이지. 중국인은 온갖 구차한 삶의 이상향을 생각해 놓았지만, 유감스럽게도 결국은 실현된 게 하나도 없다네.

하지만 난 그들을 위해 발견한 게 하나 있기는 하네. 아마 자네들도 알 걸세. 북경(北京)의 제1감옥 말일세. 이 감옥은 선무문(宣武門) 밖 빈터에 있기 때문에 옆집에 불이 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네. 매일 두 끼 식사가 제공되니 추위와 굶주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규칙적 생활을 하니 건강을 해칠 리 없지. 구조가 튼튼해서 붕괴될 우려가 없고, 간수가 감독하니 재범의 우려도 없으며, 강도가 침입할 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러니 감옥에서 사는 건 안전 그 자체라, 그야말로 ‘부잣집 자식은 처마 아래 앉지 않는다.’에 값한다고 할 수 있지.

고훈의 가르침이란 바로 이런 생존 방식이라네. 움직이지 말라는 거지. 움직이지 않으면 실수가 적은 건 물론이겠지. 하지만 실수가 적은 걸로 친다면 생명이 없는 암석이나 모래가 훨씬 낫지 않은가? 난 인류가 향상하기 위해서, 즉 발전의 견지에서 보면 활동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네. 활동하다 약간의 실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닐걸세. 오히려 반생반사(半生半死)의 구차한 생존이야말로 말짱 허사인 게지. 구차한 생존은 삶의 허울을 썼을 뿐 실상은 죽음의 길로 이끄는 거나 다를 바 없으니 말일세.

□ 문 항 □

【문항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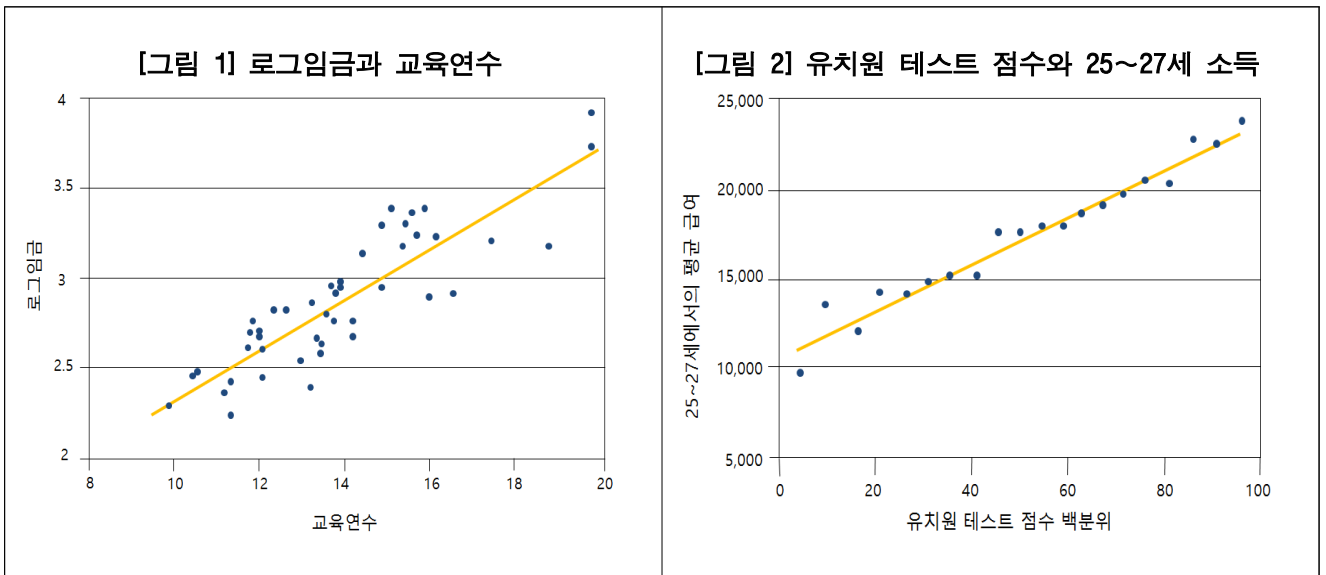
【문항 2】

[그림 1]은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관측되는 근로자들의 평균 로그임금*과 평균 교육연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미국에서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STAR***라고 불리는 한 실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실험에 참여한 유치원생들이 학업과정 종료 후 실시된 학업성취도 테스트에서 올린 점수의 백분위와, 세월이 흘러 그들이 노동 시장에 뛰어들 25~27세에 얻은 평균소득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로그임금: 시간당 임금에 로그(log)를 취한 값

**교육연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햇수(years of schooling)를 의미

***STAR: Student/Teacher Achievement Ratio, 학생/교사 성취 비율



[그림 1]과 [그림 2]를 모두 이용하여 교육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논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항 3】

<보기>는 변호사 A 씨의 법정 변론의 일부이다. A 씨의 주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정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 <보기> —————

우리 모두는 유전과 환경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일개인으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의, 아니 전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한 한, 범죄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입니다.